

이성하. 2002. 이말전 접근법과 새로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
외국어교육논집 16: 157-180.

이멀전 접근법과 새로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

이 성 하**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영어교육
3. 이멀전과 외국어교육의 이론적 배경
4. 이멀전 프로그램
5. 한국 초등영어에서의 이멀전 시행 가능성
6. 결론

1. 머리말

이 글은 최근 영어교육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멀전 영어교육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현재 한국에서의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관하고 이멀전 접근법의 학술 이론적 배경과 역사, 또한 현재 이멀전 접근법의 현황 및 교육 성과의 평가, 그리고 이멀전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 새로운 영어교육의 패러다임의 국내 시행 가능성에 대해 간단하게 고찰해보기로 한다.

2. 한국의 영어교육

한국의 영어교육,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영어교육은 조기 영어교육이

* 본 논문은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칼리츠 이멀전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시행한 연구의 일부로 2001. 9. 7의 이멀전 프로그램의 특강과 2001. 10. 25의 나사렛대학교 교육대학원 특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조교수

라는 주제로 많은 연구를 거쳐오면서 반대와 찬성의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면서 1997년부터 초등학교 상급학년의 정규교과목에 영어가 포함되게 되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시작된 것은 한국의 영어교육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시행에 있어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2.1 수업시수의 문제

현재 한국의 초등학교에서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3학년과 4학년 과정에서는 1시간, 5학년과 6학년 과정에서는 2시간씩의 영어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수업시수의 부족은 외국어로 영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어를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 교육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이처럼 적은 수업시수를 갖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이외에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업시수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가장 높은 성취도를 나타내었던 프로그램 중의 하나였던 미육군성에서 시행한 육군특수훈련프로그램 (ASTP; Army Special Training Method)이다.¹⁾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적지에서 성공적으로 첩보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보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자신이 배운 해당 외국어 지역에서 원어민과 다름없는 완벽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되었다. 이 육군특수훈련프로그램이 목표로 한 외국어 학습의 노출 시수는 주당 25 시간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1년 교육성취효과가 3개월 정도에 달성되는

1) 이 프로그램은 1942년 12월부터 1944년 초까지 단기간만에 해체되었는데, 지능지수(IQ) 115이상이며 언어적 적성을 보인 15만명이상의 수련생들이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이 교수법은 후에 Army Method와 Audiolingual Method에 의해 계승되었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무성 외교학교(Foreign Service Institute)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어 모국어화자가 영어와 어족관계가 없는 중국어나 일본어 등의 언어에서 직무상 필요한 수준의 유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달해야 하는 노출시간이 4,375시간이다 (김성익, 1992).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행체제하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이 전체 10년 동안의 노출시간이 평균 1,584시간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장미경, 2002) 절대시수의 부족은 성공적인 영어학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2.2 교사의 영어 능력의 문제

모든 교육에 있어서는 능력 있는 교사의 지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어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유창도, 즉 영어능력은 다른 어떤 교과보다도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초등영어교육의 영어교사들은 그 유창도에 있어 대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이 가장 민감하게 언어 자료를 수용하는 초기 영어학습을 맡고 있는 교사들이 그 유창도에 있어서 크게 뒤지는 것은 초등 영어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60% 이상의 교사들이 일정시간 즉 120시간 이상의 영어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120시간 이상의 영어연수를 통해 영어교육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영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 초등학교 교사가 120시간 정도의 짧은 연수를 받아 곧바로 영어교육 현장에 투입된다는 것은 영어교육의 입문기인 초등학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점이 많다 (오영희, 1999: 42).

뿐만 아니라 최근 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훈련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취득한 그러한 전담교사들이 오

히려 5학년 6학년의 학생들을 위해 배치되고 있고, 3학년 4학년 학생들은 그러한 전문적인 자격이 미흡한 담임교사들이 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장 훌륭한 교사들이 배치되어야 할 곳에 상대적으로 가장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에 이르는 영어교사들이 전혀 영어연수를 받지 않고 영어교사로 투입되었다는 통계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현재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상과 배치되는 것이다. 즉 현재 7차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에서는 언어기능 중 듣기와 말하기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음성 언어중심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특성이 잘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음성언어가 강조되는 초기 영어학습을 위한 교사를 그 유창도에 있어서 미흡한 인력으로 배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3 교육내용의 문제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제한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어휘는 초등학교 전체 과정에서 총 500개 내외의 낱말을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년별로 보면, 3학년과 4학년에서 각각 100개 내외, 5학년과 6학년에서 각각 150개 내외로 되어 있다. 이 중 교육과정 부록의 '기본 어휘표'에 제시된 800개의 기본 어휘 중에서 400개의 낱말 정도가 포함되도록 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장의 길이도 3-4학년의 경우에는 문장 내의 단어수를 7개 이내로, 5-6학년의 경우에는 9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휘 제한 현상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없는 것이며,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있으나 그 제한 어휘수는 우리의 500개의 2배가 되는 1,000개이다. 물론 러시아의 영어교육도 그 성취도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교육부가 추구하고 있는 교육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즉 6차 교육과정부터 현 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에서는 영어교육이 고전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언어자료를 교육함으로써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지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제한된 언어자료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 볼 것은, 아동들이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언어자료에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의사소통학 또는 대화론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일상대화를 하는 데에는 시간당 4-5,000 단어 정도가 쓰이고, 방송언어에서는 시간당 8-9,000 단어 정도가 쓰인다. 또한 독서를 하는 데에는 시간당 14-15,000 단어가 쓰인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루에 한 시간 대화하고 한 시간 방송을 듣고 한 시간 독서를 하게 되면 이 3 시간 동안 전체 노출 어휘수가 약 3만 단어가 된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평균 훨씬 많은 어휘수에 노출된다. 통계적으로는 약 10만 단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진우 1985: 8). 그런데 현재 초등교육에 있어서 1년 내내 학습되어야 할 어휘수를 100단어로 제한하게 될 경우 이 어휘수로 생산적으로 발화하여 노출시킬 수 있는 단어의 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²⁾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도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많은 의사소통 기능 중심의 내용들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교재나 학습내용에 현실성이 없는 문형들이나 언어자료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극단적인 형태로 흥미유발을 위해 놀이나 게임만을 통해 영어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이는 놀이나 게임 등만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전신신체반응법(TPR; Total Physical Response)과 같은 교수법의 비판에서도 늘 제기되는 바와 같이 그러한 방식으로 실제 시행할 수 있는 언어자료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그러한 유희활동이 학습에 보조적으로는 사

2) 물론 학습목표가 되는 어휘수와 일상에서 노출되는 어휘수는 마치 type과 token의 관계와 같은 것이어서 1대1 대응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절대 type의 개수가 적을 경우 절대 token의 개수도 적을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용될 수 있으나 전적으로 그러한 방식에만 의존하는 영어교육은 필연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이멸전과 외국어교육의 이론적 배경

초등 단계의 아동 영어교육에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영어학습법은 모국어학습법과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아동들이 목표어, 즉 영어사용권에 가서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자기의 모국어와 마찬가지로 습득하게 된다. 이것은 어른들과는 대조되는 현상이며 그런 점에서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동들의 모국어 습득,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학계의 학설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어 학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특별히 결정적 시기, 발화근육 조절능력, 모국어 간섭, 장의존성 및 좌우반구 주도성, 언어생득설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멸전 접근법은 바로 이러한 학술적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3.1 결정적 시기

흔히 언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란 언어를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언어 습득이 어려워지는 생물학적 기간을 일컫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은 처음에는 모국어 습득에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Bickerton (1981)의 연구 이후 최근에는 외국어 습득에도 어떤 시기를 전후하여 언어학습이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분수령이 있다는 것이 학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러한 외국어습득의 결정적 시기는 대개 사춘기 정도인 것으로 보는데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11-12세 전후에 이러한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언어습득론에서는 아이들이 한 살 반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언어습득장치가 활발하게 작동하여 5세 정도에는 대부분의 문법적

인 사항들이 이미 완전하게 습득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왜 결정적 시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어 왔다. 심리언어학자나 언어습득학자, 신경정신학자들은 인간의 두뇌가 좌반구와 우반구로 인간의 특정한 기능이 집중화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Lenneberg 1967). 이러한 현상을 두뇌의 반구화 (lateralization)라 부른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결정적 시기가 바로 이 두뇌의 반구화 완성시기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Scovel (1969)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는데 이러한 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반구화가 완성되기 전에는 아직 아동들의 두뇌가 유연하여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에 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3.2 발화근육 조절능력

인간이 언어를 발성하는 데에는 목구멍, 후두, 입, 입술, 혀, 턱 등을 비롯한 수백 개의 근육이 상호협력을 하면서 관여하게 된다. 신생아는 출생 당시에는 발성 근육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고 겨우 후두에서 울음을 낼 정도에 지나지 않다가 이 발성 근육이 점점 발달되어 사실상 5세가 되어서야 특정 언어의 음 조절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결정적 시기에 대한 가설이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상한선을 제시해 준다면 이 발화근육 조절능력은 외국어의 유창한 습득을 위한 하한선을 제시해 준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성공적인 언어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절대노출시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할수록 절대노출이 많을 수 있으므로 5세 이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계획적인 교수-학습의 과정이 실행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여 5세 이전의 아동과는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기 어렵고, 또한 아동들의 발화근육이 성숙되지 않아서 아동들의 정확한 언어발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순수한 언어학적 문제 이외에도 발달생리학적 고려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부수적인 문제

를 제기한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모국어 습득과정은 물론 신생아 때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아동들의 정식 외국어 학습의 경우에는 대개 5세 이후 12-13세 이전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3.3 모국어 간섭

외국어 학습 일반론에 있어서 흥미로운 사실은 어른들은 외국어 학습에 모국어로부터의 전이가 있어서 일종의 간섭현상이 있는데 비해, 아동들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모국어로부터의 부정적인 간섭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아이들은 여러 개의 언어에 동시 노출될 때에도 모국어 지식이 다른 언어에 방해를 일으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동시에 학습한다는 것이다.

연령과 모국어 간섭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초기의 연구로 괄목할 만한 것은 Asher & Garcia (1969)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는 6세 이전에 이민 온 어린이의 68%와 12세 이전에 이민 온 어린이의 41%가 영어 사용 성인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완벽한 발음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모국어의 발음이 남아 있는 경우는 6세 이전에 이민 온 어린이의 32%, 12세 이전에 이민 온 어린이의 43%에 비해, 13세 이후에 이민 온 어린이의 93%가 모국어의 발음이 남아 있어 원어민의 발음과 다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국 정확한 발음의 성공 가능성은 어린 연령에서 시작할수록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³⁾

이러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두뇌의 유연성, 결정적 시기 등의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연구결과는 Oyama (1976), Rosansky (1975) 등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Patkowsky (1980), Ervin-Tripp (1974), Fathman (1975) 등의 연구에서는 발음이나 청해 등의 경우에는 어린이가 더 완성도가 높으나 구조, 문법 등의 경우에는 성인이 더 성취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4 장의존성 및 두뇌 좌우반구 주도성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간의 여러 가지 기능들은 그 두뇌의 담당영역이 특정한 지역에 분포한다는 이른바 집중화 현상(localization)을 보이며 특히 좌·우반구는 담당하는 기능이 다르고, 따라서 좌·우반구 중 어느 반구가 주도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인지적인 스타일도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f. 'hemispheric dominance' Torrance, 198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좌반구 우세형인 경우에는 지적인 것, 객관적인 것, 언어적인 것, 체계적인 실험, 확실한 정보, 언어의존적인 것, 감정이 절제된 것, 사지선다식으로 선택이 확실한 것 등을 선호하고 이러한 과제에 우세한 해결을 보이는 반면, 우반구 우세형인 경우에는 직관적인 것, 상징적인 것, 무작위적 실험, 불확실한 정보, 영상의존적인 것, 감정이 절제되지 않은 것, 정확한 해답이 없는 문제 등을 선호하고 이러한 과제에 우세한 해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Krashen 외 (1974)에서는 좌뇌우세형인 언어학습자는 연역적인 방법 즉, 규칙을 제시하고 후에 규칙을 응용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는 반면 우뇌우세형인 언어학습자는 귀납적인 방법, 즉 사례를 많이 제시하여 그로부터 규칙을 도출하게 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Stevick (1982)에서도 좌뇌우세형인 학습자에게는 단어암기, 언어학적 규칙의 세밀한 사항 암기, 추상화, 분류, 재구성 등이 효과가 있으며 우뇌우세형인 학습자에게는 일반화, 은유화, 감정적인 대응, 총체적 접근법 등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우뇌우세형인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사람은 장의존성 (field dependence)에 있어서도 개인차를 보인다. 장의존성이란 어떤 상황이나 사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비분석적으로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뇌우세형인 사람이 장의존성이 높으며 좌뇌우세형인 사람이 장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의존성이 높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문법항목이나 논리 문제 같은 분석적인 내용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아동들은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장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아동들이 장의존성이 높고 우뇌우세형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곧 아동들의 언어교육에 있어서 문법항목을 교육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아동들은 포괄적으로 체험적으로 배우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그러한 방식이 문법 규칙을 가르치거나 언어자체를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와는 다른 지적인 발견 감성적인 충족과 연결될 때에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5 언어생득설

언어생득설이란 인간은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천부적으로 타고 난 것이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능력과는 관계없이 언어능력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저절로’ 배우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동들의 언어습득이 모방과 상벌에 의한 강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아동의 언어습득과정을 면밀하게 연구해보면 모방이나 강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언어학습 장치를 통해 스스로 규칙을 형성하고 검증해 가면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아동들은 자연스러운 언어정보가 제공되면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득능력을 통해 언어의 모든 음운, 통사, 의미적 구조를 배우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대개 5년 정도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국어 습득의 경우가 아닌 외국어로서의 언어학습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종류의 언어자료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풍성하고 자연스러운 언어자료를 입력으로 제공하되 아동의 인지능력에 부합하는 섬세하게 잘 디자인된 언어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 이유는 언어학습이론 학자들에 따르면 아동들은 모국어나 외국어나 문법적 특징을 가진 언어요소들이 배워지는 일정한 순서가 있으며 그 순서가 어긋나게는 잘 배우

지 못한다는 이른바 자연적 순서 가설 (Natural Order Hypothesis)이 있기 때문이다 (Dulay & Burt, 1974, 1976; Krashen 1982).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동들은 결정적 시기 이전에 외국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모국어의 습득이나 제2언어의 습득과 같이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언어의 노출에 의해 언어를 배우게 되는 습득의 과정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인위적이고 구체적이고 조작적인 방법에 의해 외국어로서 교수-학습의 과정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아동의 발성근육이 충분히 성숙한 이후, 즉 약 5세에서 11-12세 사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분석적인 교육보다는 총체적이고 자연적이며 포괄적인 학습을 지향하여야 하고, 풍부한 언어자료를 제공하되 인위적이지 않도록 잘 디자인된 프로그램으로 영어교육을 해야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 이მersion 프로그램

지금까지 살펴본 언어습득, 언어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된 이머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그 역사와 특징, 프로그램 유형, 지금까지 시행된 이머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머전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4.1 이머전 프로그램의 역사

이머전 (Immersion)이란 ‘몰입(沒入)’을 뜻하는 말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는 특별한 교수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최초의 이머전 프로그램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1960년대 말 캐나다 몬트리올 근처 St. Lambert에서 McGill 대학의 교수 및 연구진과 함께 추진하였던 St. Lambert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에는 캐나다에만도 3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이 확실한 외국어 교육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4.2 이멀전 프로그램의 특징

이멀전 교육의 특징은 그야말로 그 단어의 뜻대로 ‘물 속에 잠기는 것처럼 몰입’하는 데에 있다. 그래서 처음 이멀전 교육을 ‘언어목욕 (language bath)’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즉 다른 영어교수법에서는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풀장에 둘러 앉혀놓고 물에 대해 설명하고 물을 손가락이나 발가락으로 만져보게 하는 식이라면 이멀전교육은 아이들을 물 속에 들어가게 하고 물 속에서 뛰어 놀고 움직이게 함으로써 수영을 가르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아이들에게 영어의 공식이나 단어를 조각조각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배우는 일반 교과목의 내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다. 즉 표면적으로는 영어가 학습의 목표가 아니라 영어는 단순히 도구에 해당되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에는 전체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해당 외국어로 교수 받음으로써 외국어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수법이다 (Met & Galloway, 1992). 따라서 이멀전교육에서는 수학, 자연, 사회, 미술, 음악 등의 교과 내용들이 외국어로 가르쳐진다.

처음 캐나다에서 이멀전을 시작할 때에는 이 방법이 너무나도 과격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켰다. 그러나 당시 캐나다에서는 이른바 ‘조용한 혁명 (Révolution Tranquille)’과 그 뒤를 이은 분리주의 운동의 확산으로 캐나다의 불어권 지역에서의 영어사용자들에 대한 정치적인 반감이 확산되어 가고 따라서 영어사용자들은 업무수행을 위해 불어를 사용해야 하는 필요가 급속도로 증대된 반면 불어교육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이 제시한 이 과격적인 방법을 부득이 사용해 볼 수밖에 없었는데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것이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을 유치원과정부터 이멀전교육으로 외국어를 가르칠 경우 대개 2학년이 되면 모든 학생들이 완벽한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되며 (Met, 1993), 놀랍게도 일반 교과목의 성적도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은 원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미네소타대학과 같은 미국의 일부대학에서는 대학교 과정에서도 10여 개의 외국어로 2-30개 강좌를 이멀전교수법으로 시행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공의 열쇠는 이멀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것은 곧 아동들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때에, 언어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체제 속에서는 학습과정에 불안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언어자체를 학습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교과 내용을 학습대상처럼 제시하면 아동들은 그 교과내용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언어 학습 자체에서 오는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학습과 불안감의 상관관계는 한국어에 능숙한 한국어 모국어 사용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국어 어문규칙을 배우는 국어시간을 불편해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이다. 물론 교과내용이 지나치게 어려워져 학습자 아동들의 인지적인 수준을 넘어서거나 너무 복잡한 개념이나 용어들이 사용되거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론 효과적인 외국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적절한 교사 훈련과 적절하게 잘 디자인된 교재가 이멀전 교육의 성공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4.3 이멀전 프로그램의 유형

이멀전 프로그램은 그 목표언어와 학교, 학생의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그 유형이 대개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는 완전 이멀전 (Total Immersion)으로 이 프로그램은 모든 교과목을 유치원과정(K; Kindergarten)부터 외국어로 가르치는 것이다. 모국어는 초등학교 말기에 가서 20-50%씩으로 차츰 늘려간다. 둘째는 부분 이멀전 (Partial Immersion)으로 교과목의 50%는 외국어로 50%는 모국어로 가르치는 것이다. 때로는 동일한 내용을

두 언어로 반복수업을 하기도 한다. 셋째는 양방 이멸전 (Two-Way Immersion)으로 학생들의 모국어가 서로 다른 두 가지 언어인 상태에서 그렇게 언어가 다른 학생들을 절반씩 섞어놓은 교실에서 두 가지 언어 모두를 사용해 가며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방 이멸전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현재 미국에만도 거의 300개에 이르는 양방 이멸전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이멸전 프로그램들은 모든 유형을 포함할 경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중이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스페인어 이멸전이나 프랑스어 이멸전을 비롯하여, 아랍어, 중국어, 화란어, 에스키모어, 독일어, 하와이 원주민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메리칸 인디언어 등 매우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이멸전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4.4 이멸전 프로그램의 평가

1960년대 말 캐나다에서 시작된 St. Lambert 프로그램 이후 여러 이멸전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Great Montreal Program에 대한 Genessee (1979, 1984)의 두 차례에 걸친 결과분석보고와, Carlston & Toronto Program에 대한 Swain & Lapkin (1982)의 결과분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조사들과 그 후속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인 영어 프로그램의 영어 단일상용화자 아동의 몰입학습과 불란서 학교의 불어 단일상용화자 아동의 몰입학습이 서로 비교되었다. 연구평가에 의해 제기된 세 가지 쟁점들은 (1) 영어 언어능력에서 불어로 강의를 받는 효과, (2) 학문적 성취도에서의 이멸전학습의 효과, (3) 제2언어능력의 발달에서의 이멸전학습의 효과 등이었다 (Genessee, 1984). 이 연구들의 발견사항을 Hamers & Blanc (1989)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하고 있다.

첫째 모국어의 유창성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능력과 표현하는 능력에 지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멸전학습의 아동은 처음 2년동안 문어로 된 내용의 이해에서 약간의 지체를 보이는 듯

하다가 곧 사라지며 궁극적으로 이멀전학습자에게 모국어능력의 결손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제2언어의 유창성의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2언어를 교수-학습받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많은 경우 이멀전교육을 받은 아동들에게 시행된 문제들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수준보다 너무 어려워서 거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Met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이멀전 프로그램으로 외국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2학년 또는 3학년까지는 외국어에 능통(fluent)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ERIC Digest ED363141).

셋째 학업성취도의 경우에는 완전이멀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그들이 제2언어로 강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학과 과학 테스트 등 일반 교과목의 테스트에서 모국어로 이러한 교과목 강의를 받은 학생들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멀전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일반 학업성취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Holobow 외 (1987), Swain & Lapkin (1991) 등의 연구에서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멀전 프로그램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외국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수학과 같은 일반교과목에서도 다른 학생들보다 더 성취도가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넷째 이멀전학습아동들에 대한 기타 평가에서 몇 가지 특징들이 보고되고 있다. 우선 이멀전 학습은 인지향상을 도모한다는 몇몇 증거가 있다. 즉 IQ 측정에서 이멀전학습 학생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학생들보다 그 지수가 해마다 더 많이 증가했다 (Barik & Swain, 1978). 5학년과 6학년의 이멀전학습 학생은 분리적 사고 측정 (Scott, 1973)과 창의력 측정 (Edwards 외 1976)에서 더 좋은 점수가 나왔다.

이상과 같은 초기 연구들 뿐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도, 미국 교육부 산하의 미국교육정보센터 (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가 2001년 2월에 작성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30% 이상의 초등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Fortune &

Jorstad (1996)에서는 미국내 초등학교들 중에서 이멀전 프로그램으로 유치원과정 또는 1학년부터 외국어 교육을 하는 100여 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외국어 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4.5 이멀전 프로그램의 비평

이멀전프로그램은 여러 분야에서 비평을 받아왔다. 실험학적 관점에서 이멀전프로그램은 부모들이 선호하였기 때문에 통제집단과 비교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결과는 이른바 Hawthorne Effect⁴⁾에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Hamers & Blanc, 1989). 특히 이멀전 프로그램은 재능있는 아동들을 선호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는데 Genesee(1976)에서는 초기이멀전교육을 받는 평균이하 아동들도 제2언어로의 의사소통능력에는 평균이상의 아동과 똑같은 유창성을 발달시키므로 이멀전프로그램은 모든 아동들에게 적합하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멀전프로그램을 위한 교재들이 언어학적으로 잘 검증되지 못한 것이라는 점, 완벽한 모국어화자 정도의 능력을 발달하게 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동기가 부족한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Harley & Swain, 1977, 1978; Blanc, 1980, Dodson, 1981).

그러나 이와 같은 초기 연구에서의 비평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에서는 그 효과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검증되었고 따라서 현재 영어 상용 캐나다인 학생들의 약 75%가 이멀전프로그램에서 불어를 배우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멀전은 주로 스페인어-영어 양방 이멀전프로그램인데 최근 그 언어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1990년에 와서는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서 ‘한국어-영어 양방 이멀전교육 프로그램 (KE-TWIP: Korean-English Two-Way Immersion Program)’이 시작되어

4) Hawthorne Effect란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실험자들이 실험결과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피실험집단은 단순히 그 관심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원래 Western Electric사의 Hawthorne 공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실험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1993-1994학년도 말에 75명의 유치원생과 25명의 1학년생이 이 프로그램을 수료했으며 2000년까지 로스앤젤리스 지역의 3개 초등학교에서 500명 이상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Campbell, 1994). 이러한 최근의 동향은 이멀전 프로그램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 한국 초등영어에서의 이멀전 시행 가능성

우리나라에서는 영훈초등학교에서 1995년부터 국내 최초로 이멀전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 실험적 프로그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그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1996년도부터는 1학년-3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멀전을 시행하였으며 1997년부터는 기타 학년에까지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서은희 (1999)에서는 한국에서의 초등영어 이멀전모형의 도입 가능성을 간단하게 살펴본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멀전모형 도입의 타당성으로서, 강한 외국어 학습동기의 부여, 분명한 언어사용의 필요와 목적 제시, 자연스러운 언어사용의 촉진, 진정한 의사소통 상황의 제시 및 이의 종합적 경험기회 제공, 총체적인 언어습득 기회 제공 등의 장점을 들고 있다. 아울러 문제점으로서 초등학교의 교육목적이 오도될 우려와, 교육여건상 지역적 상황, 재정적인 문제 등을 들었다.

장미경(2002)에서는 이멀전의 시행을 위한 기반조성 방안을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Campbell (1994)에서 제시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선결요건에 따라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 (a) 지역사회와 교육자들, 학부모들 간에 영어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동의
- (b) 원어민 또는 원어민의 유창도에 준하는 언어능력을 가진 교사의 확보
- (c) 시행 전에 철저한 사전 프로그램 구성

위와 같은 선결요건에 대한 조사에서 교육관계자들과 학부모들 사이에 영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 하나 이멀전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사 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교육기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교수자료의 확보와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수년간 집중연구를 해야 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여러 이멀전 전문가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효율성이 입증된 이멀전 프로그램이 미국내에서 대대적으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하여 Branaman 외 (ERIC 6.1)의 연구보고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문제이며 둘째는 교사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그 문제의 성격상 공교육체제에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공교육체제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일부 학교에만 시행하는 데에 반발이 예상되며 공교육체제 전체에 확대해서 시행하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가 예산상 이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수급문제도 이들의 훈련과 아울러 고급고용인력의 증가도 단순한 인력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충분한 재정부족이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난제라 할 수 있다.⁵⁾

이와 같은 난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멀전을 공교육체제가 아닌 사교육체제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교육체제에서 시행할 경우 그 규모에 있어서 전국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며, 자격을 갖춘 교사를 확보하거나 훈련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공교육재정의 확충을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교육에서는 기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국어에 의한 일

5) 또한 일부에서는 영어에 의한 교육이 일반교과목까지 확대시행되는 이멀전프로그램의 경우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반교과 강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⁶⁾

6. 결론

지금까지 이멀전 프로그램을 학술적인 이론과 이 프로그램 시행의 배경과 역사 등을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이멀전 프로그램에 대한 효용성 평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멀전 프로그램은 언어습득 또는 언어학습 이론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불안감 없이 가장 빠르게 외국어를 습득하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실제로도 연구조사에서도 이것을 입증해 주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 목표가 되는 외국어 능력 성취는 물론 일반 교과목의 성취도도 향상되고, 모국어의 능력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능지수가 더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재정적인 문제와 자격있는 교사의 수급에 있어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모두 경제적인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체제에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확산이 어려우며 특히 한국의 공교육 체제의 경우에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멀전 프로그램의 시행은 공교육체제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사립학교나 사교육기관에

6) 이와 같은 사교육체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내의 본격적인 이멀전프로그램이 칼리츠 프로그램 (Calritz Program)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이동일·이성하 교수팀에 의해 개발되어 총 8단계로 구성된 교재를 사용하고, 교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수평가원에서 원어민 또는 준 원어민의 유창도를 가진 교사들에게 이멀전 교수법을 150시간 연수하여 그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서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와 교사수급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에서는 이렇듯 교육이야말로 그 성공이 보장된 가장 효율적인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성익 (1992) 국민학교 영어교사 양성의 문제점과 영어교육 개선방안. 『영어교육』 제 43호.
- 김진우 (1985) 『언어』 서울: 탐출판사.
- 서은희 (1999) 『총체적 언어접근법을 통한 초등영어지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영희 (1999) 『한국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경 (2002) 『이말전교육 시행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sher, J. & Garcia, R. (1969) The optimal age to learn a foreign language. *Modern Language Journal*. 8.
- Barik, H. C. & Swain, M. (1978) A longitudinal study of bilingual and cognit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1: 251-263.
- Bickerton, D. (1981) *Roots of Language*. Ann Arbor: Karoma Publishers.
- Blanc, M. (1980) Réflexions sur quelques Classes d'Immersion. Unpublished mimeo. London: Birbeck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 Branaman, L., Rhodes, N., & Rennie, J. A national survey of K-12 foreign language education. ERIC 6.1
- Campbell, R. N. (1994) Immersion Models of Foreign Language

- Education. “세계화와 조기 외국어 교육” 1994년도 학술대회 발제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인간발달연구소.
- Dodson, K. (1981) A reappraisal of bilingual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H. Baetens Beardsmore (ed.) *Elements of Bilingual Theory*. Brussels: Vrije Universiteit te Brussel.
- Dulay, H. C. & Burt, M. K. (1974) Natural sequenc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Language Learning* 24: 37-53.
- Dulay, H. C. & Burt, M. K. (1976) Creative construction in second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Language Learning, Special Issue Number* 4: 65-79.
- Edwards, H. P., Doutriaux, C. W., McCarrey, H. A., & Fu, L. (1976) Evaluation of second language programs: Annual Report 1975-1976. Unpublished mimeo. Ottawa: Roman Catholic Separate School Board.
- Ervin-Tripp, S. M. (1974) Is second language learning like the first? *TESOL Quarterly*. 8: 11-127.
- Fathman, A. (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second language productive ability. *Language Learning*. 25: 245-253.
- Fortune & Jorstad (1996) U. S. Immersion Programs: A National Survey. *Foreign Language Annals* 29.2: 163-190.
- Genessee, F. (1976) The role of intelligence in second language learning. *Language Learning*. 26: 267-280.
- Genessee, F. (1979) *Les Programmes d'Immersion en Français du Bureau des Ecoles Protestantes du Grand Montréal*. Quebec: Etudes et Documents du Ministère de l'Éducation du Québec.
- Genessee, F. (1984) French Immersion Programs. In S. Shapson & V. D'Oyley (eds.) *Bilingu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anadian Perspectiv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Hamers, J. F. & Blanc, M. (1989) *Bilinguality and Bilingu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rley, B. & Swain, M. (1977) An analysis of verb form and function

- in the speech of French immersion pupil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14: 31-46.
- Harley, B. & Swain, M. (1978) An analysis of verb systems used by young learners of French. *Interlanguage Studies Bulletin*. 3: 35-79.
- Holobow, N., Genesee, F., Lambert, W., Gastright, J., & Met, M. (1987) Effectiveness of partial French immersion for children from different social class and ethnic backgrounds. *Applied Psycholinguistics*. 8: 137-152.
- Krashen, S. (1982)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Press.
- Krashen, S., Seliger, H., & Hartnett, D. (1974) Two studies in adult second language learning. *Kritikon Litterarum*. 3: 220-228.
-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Wiley.
- Met, M. & Galloway, V. (1992) Research in foreign language curriculum. In P. W. Jacks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Curriculum*. 852-890.
- Met, M. (1993) Foreign language immersion programs. ERIC Digest ED363141.
- Oyama, S. (1976)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a nonnative phonological system.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5: 261-283.
- Patkowsky, M. S. (1980) The sensitive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Learning*. 30: 449-472.
- Rosansky, E. J. (1975) The critical period for the acquisition of language: Some cognitive developmental considerations. *Working Papers on Bilingualism*. 6: 92-102.
- Scott, S. (1973) The relation of divergent thinking to bilingualism: Cause or effect? Unpublished research report. Montreal: McGill University.

- Scovel, T. (1969) Foreign accents, language acquisition, and cerebral dominance. *Language Learning*. 19: 245-254.
- Stevick, E. (1982) *Teaching and Learning Languag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wain, M. & Lapkin, S. (1982) *Evaluating Bilingual Education: A Canadian Case Stud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Swain, M. & Lapkin, S. (1991) Additive bilingualism and French immersion education: The roles of language proficiency and literacy. In A. Reynolds (ed.) *Bilingualism, Multiculturalism,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The McGill Conference in Honour of Wallace E. Lambert*. Hillsdale, NJ: Erlbaum.
- Torrance, A. P. (1980) *Your Style of Learning and Thinking, Forms B and C*. Athens: University of Georgia Press.

Abstract

Immersion Approach and a New Paradigm of English Education

Seongha Rhe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a new method of English education that has recently drawn considerable attention of the foreign language educators and researchers alike as a new promising paradigm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t addresses the current issues as to the problems in the English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in Korea; introduces the history and worldwide status quo of the immersion approaches along with their criticisms and evaluations; and explores the viabilit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in Korea.

Since the monumental inception of the compulsory English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s in 1997 after a long drawn-out controversy, various kinds of problems have been identified. Among them are the insufficient instruction hours, under-qualification of elementary school English teachers, particularly at the lower division where the first English contact takes place, and overly restricted instruction contents, such as limited vocabulary and limited sentential lengths. For a more fruitful achievement of English education, these fundamental problems must be redressed.

There are several important aspects in child language acquisition or learning that have to do with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the immersion approach; the critical age hypothesis, speech-motor muscular maturation, L1 interference, field dependence and hemispheric dominance, and the language innateness hypothesi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se issues brings forth a conclusion that a formal education of a foreign language must begin before puberty and preferably after 5 years of age or so; that the instruction must be holistic rather than analytic, natural rather than artificial; and that the rich yet well-designed data must be provided to the learners.

The immersion approach was first launched in the 1960s by linguists and psychologists at McGill University at the St. Lambert area under the leadership of Wallace Lambert.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300,000 immersion participants in Canada only, and an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are getting enrolled in this new approach in the U.S. This approach is typically characterized as a 'sink-or-swim' strategy, teaching content courses in the target language, thereby attaining the fluency of the foreign language at a subconsciousness level while the learner is actively processing course contents at the consciousness level. The outcome was truly marvelous — immersion participants' L2 skills were highly developed; their L1 fluency was not adversely affected; their achievement in the content

courses was either equal to or better than the traditional method participants; and immersion participants showed faster increase in their intelligence quotient, according to some studies.

Among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s for implementation of this innovative paradigm are securing educational subsidy for implementing the approach in the formal education settings, recruiting qualified instructors in terms of their fluency and teaching skills in this new approach, and well-designed textbooks that suit the needs of the Korean elementary students. From these considerations this new approach is more compatible with the private instruction institutes at least at the current educational circumstances. However, considering the relative inefficiency of English education in Korea and the extent of success in other countries that adopted the immersion approach, implementation of this new paradigm at public school systems must be seriously considered.